

문화산업과 접목한 어항어촌의 새로운 역할



이 홍 식
중앙대 토목공학과 교수

일부 지자체에서 드라마 세트장을

유치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인 경우이다.

최근 '겨울연가'의 드라마가 한류열

풍을 일으키면서 관광 및 문화수출에

익해 창출되는 수입효과는

엄청난 액수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1. 서론

어항·어장은 수산업 생산 활동의 근간인 동시에 어촌생활정주환경의 기반시설이다. 어항은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어촌, 신선한 수산물 등이 어우러져 국민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휴식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는 자연체험의 교육장을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공간이다. 그러나 수산 자원의 고갈 및 어업여건 악화, 어업인구 고령화 등으로 어촌경계는 퇴조되고, 어촌정주환경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

본 발표는 어항개발에 대한 보다 새로운 차원의 어항어촌의 역할을 정립하여 미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려해 본 것이다.

2. 우리나라 어항어촌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국가어항은 105개항으로 2002년까지

1조5900억원을 투자하여 67개항의 기본시설을 완공한 상태이다. 제도상으로 중앙부서에서 어항개발 사업을 집행하고, 완공 후에는 관할 시·군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어항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인하여, 어항 및 배후부지의 관리문제 등이 발생하고, 어항을 이용하고 있는 수협이 재정자립도도 낮기 때문에 적기에 기능시설 투자를 하지 못하여 어항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어항어촌과)는 "국가어항 배후부지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Working group 회의"를 통하여 전국 105개 국가어항 중 기본시설이 완비된 서해, 동해, 남해의 각 2개 항, 총 6개 항(국동항, 돌산항, 감포항, 양포항, 격포항, 서망항)을 선정, 국가어항의 효율적 관리와 배후부지 활성화 수립 방안에 관해 연구하였다.(해양수산부, 2003)

3. 어항별 관리현황

3.1 국동항

국동항은 여수시 봉산동, 국동, 신일동 해안에 걸쳐 위치한 천연의 양항 조건을 갖춘 어항으로 1976년부터 단계적으로 건설부(IBRD 차관사업), 수산청, 해양수산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총 계획 296억원 중 2002년도까지 총 221억을 투자하였다.

국동항은 국가어항 중 최대 규모로 그 배후부지는 약 43,000평이며, 이 중 37,500평(87%)에 대부분의 기능시설이 있고 주로 수산물 위판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항 배후부지에 민자투자로 이루어진 건물 6동(5,396평) 중 건물 1개동만 사용 중이며 나머지 5개동은 방치된 상태다. 국동항은 넓은 배후 부지를 갖고 있으나 비활성화 및 환경악화가 점차 진행되고 있다.

2002년 여수해양지방청에서 6천4백만원을 긴급 투입, 어항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무단침범사용 및 인근 주택가 생활쓰레기 투기가 감소하긴 하였지만, 어항 사용료 징수액이 950만원에 비하여 어항관리비는 1억 7천만원이 소요되고 있다. 즉,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태와 어항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어항관리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3.2 돌산항

돌산항은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 1990년에 기본시설을 완공하였다. 1995년에는 정비계획을 수립, 1998년에 정비계획이 완공되었다.

돌산항은 매우 활성화 된 어항이지만, 배후부지가 협소하고 진입도로가 좁아 관광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도서에서 생산된 어획물을 위판하기 위해 집결하는 어선이 많아 분위기가 활기차다.

3.3 감포항

감포항은 역사가 깊은 어항이다. 이미 오래 전 1919년에 방파제 및 선착장 시설을 하였고, 1920년에 제물포항과 함께 개항항으로 출발하였다. 1961년 제2종 연안항으로 지정, 1995년 국가어항으로 변경되었다.

감포항은 1920년대 시작된 어항개발로 인하여 배후부지가 협소하지만, 어항 자체는 활성화되어 있고 성어기에는 많은 외래어선이 감포항을 이용하고 있다. 감포항 인근에는 국가 어항 2개와 지방 어항 3개, 다수의 소규모 어항이 있으나 소규모 어항들이 기능면에서 감포항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감포항 내의 오물수거와 수질향상을 위하여 감포수협과 어민들의 공동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감포수협에서는 불법건물 정리계획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어민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종 별로 구획을 나누어 부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좁은 배후부지와 횃집이 인접하여 기타 다른 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상태이고, 이로 인해 진입도로가 협소한 것도 문제점이다.

3.4 양포항

양포항은 1973년 개발에 착수하여, 1989년에 기본시설이 완공되었다. 2002년에 해안침식방지대책이 수립되어 보강공사가 시행중에 있다.

양포항은 구룡포항(북쪽 20km)과 감포항(남쪽 15km)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어항의 기능상, 위치상 불리한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다. 자연적인 여건과 기본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으나 배후부지 활용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어촌계가 관리하는 수산물 위판장이 있으나 현재는 위판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 양포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감포항, 구룡포항 등에서 위판하고 있다.

주차장은 잘 조성되어 있지만, 급유시설, 냉동시설과 같은 기능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외래 어선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실정이며, 숙박시설 및 관광레저 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포항 개발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민간 자본을 유치하려 했으나 2002년도 부지매각 계획 공고 시 흥부부족으로 인해 많은 수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해 유보된 상태다.

3.5 격포항

격포항은 1972년에 어항지정, 1985년 국가 어항으로 승격, 그 해에 기본시설계획수립, 개발착수, 1996년 기본시설을 완공하고, 2002년에는 진입도로 및 물양장 정비 확장공사가 시행되었다.

격포항은 주변 관광여건이 잘 조성되어 다른 어항에

비하여 관광객이 많고 이용이 활발하다. 격포항의 관리 실태를 보면 우선 진입도로가 잘 정비되어 외래 관광객의 차량이용이 용이하며, 화장실, 차막이 시설이 있고, 넓은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불법 포장마차가 방파제의 일부구간을 무단 점유하고 있어 안전, 자연 경관 및 환경 훼손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부안군에서 이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여도 어민들의 생계수단이라 불법행위의 단속이 어렵고, 벌금 이외의 제재조치가 없어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다. 또 외래어선원관리 문제, 다수의 관광객 관리문제가 큰 어려움으로 남아 있다. 이는 부안군의 재정 자립도가 20~30%로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예산 부족으로 적정수의 관리요원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인한다.

3.6 서망항

서망항은 1972년 어항지정, 1984년 진도대교가 개통, 1986년에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다. 1987년에 기본시설계획을 수립, 개발착수하여 1991년에 기본시설 완공, 1993년에 재정비계획을 수립, 2002년에 호안개축 및 준설공사 시행으로 기본시설을 완료하였다. 인근 어항으로는 목포항(무역항), 팽목항(연안항), 수품항(국가어항), 어란진항(국가어항) 등이 있다.

서망항은 진도대교 개통으로 외부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하고 최근 준설 공사를 완공함에 따라 항내 평균 수심 3m가 확보되어 외래어선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차막이 등의 안전시설이 잘 되어 있고,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6개항 중 유일하게 청원경찰 1인이 배치되어 관리가 대체로 잘 되고 있다 보여진다.

그러나 넓은 배후부지를 조성하였음에도 기능시설이 부족한 이유로 배후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진도군은 배후부지 활용을 위해

여 여러 가지 활용시설을 계획하였으나 서망항이 다도해 국립공원 내에 속해 있어 제약이 따랐었다. 현재 다도해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자연공원법 저촉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 태풍 시 피난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어선의 어항이용 현황에 비하여 선구점 및 어민 휴게시설과 같은 기능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발을 필요로 한다.

4. 개선방안

4.1 국동항

여수시의 수산물유통단지 일원화계획에 따라, 여수 구항(여객터미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던 수산물 유통상권이 국동항측으로 이전되고 있는 추세와 함께 민자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으로 인한 민자시설 상가분양 전망이 매우 밝다. 따라서, 배후부지 활성화를 위해 민자시설의 도입을 위한 매각처분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기타시설 개선사항으로는 1단계 시설배후부지(어구 건조 및 야적장)의 일부에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현재 노후화된 복지회관을 증·개축하여 녹지를 조성하는 등 어민 후생복지 향상 및 휴식공간 제공에 노력을 기울인다. 동시에, 2·3 단계 구간의 배후부지 중 활용도가 낮은 자투리땅을 일반인에 매각하는 사항과 단지 내 도로관리권을 여수시로 이관하는 문제 등과 같은 종합적인 배후부지 재정비계획(리모델링)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자치단체는 국동항 배후부지에 있는空地, 사용되지 않는 노후화 된 건물 등에 대하여 여러 형태의 산업, 소매 상업시설, Mariner, 박물관, 공원, 산책로와 같은 다양한 이용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규모 Zoning을 구분하여 복합이용개발

의 활용을 위한 도시어항의 재개발을 도시계획과 같은 위상으로서 고려해 볼 수 있다.

4.2 돌산항

돌산대교의 개통으로 인하여 육지와 돌산항 지역간의 접근성이 대단히 편리해졌고, 또한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된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돌산항의 경우,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활어위판장의 개선과 관광객의 방문이 용이할 수 있도록 어항진입도로의 확장, 그리고 어민 및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화장실, 주차장 등)의 설치가 시급할 실정이다.

특히, 돌산항은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어촌 고유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편의시설이 설치된다면 보다 많은 관광객이 찾게 될 것이다. 또한, 어촌체험관광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방파제에 낚시를 할 수 있는 친수시설을 제공하고, 위판장 뒤편에 소규모 전담대 겸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돌산항의 상징물로 만들고, 위판 시 조명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활성화를 위한 한 예라 할 수 있다.

4.3 감포항

감포수협에서는 활어위판장을 비롯하여 공동 주차시설 및 대형 회센터 등의 개발을 계획 중에 있으며, 감포수협에서는 노후된 위판장을 정비하여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감포항은 경주관광권에 속해 있고, 역사가 오래된 어항으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관광어항으로서의 잠재력은 상당히 크다. 감포항의 효율적인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울산, 대구, 경주 등의 주변 지역과의 연계 개발 계획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참전복과 같은 특산물을 개발하고 배후부지에 위판시설이나

활어 센터를 설치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도 배후부지 활성화 방안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본 항의 배후부지는 상기여건을 다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검토되어야 한다.

4.4 양포항

양포항은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해수수질이 양호하며, 배후부지가 넓기 때문에 그 활용범위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입지 여건상 주위의 감포항과 구룡포항이 일찍부터 어항으로 개발되어 어획물 위판 및 선수품 수급이 편리한 기능시설을 갖추고 있어 오랫동안 관습상 외래어선이 주로 두 항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감포항과 구룡포항이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항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위판장, 급수·급유시설, 제빙·냉동시설, 수산물 판매장, 진입도로 등의 기능시설이 확충된다면 외래어선 및 관광객을 양포항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넓은 배후부지를 가지고 있고 아직 상당 부분의 배후부지가 개발 전에 있기 때문에 기능별로 구획을 설정하고 각 기능에 맞게 시설들을 설치한다면 관광어항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또한 어항과 인접하여 양포해수욕장이 있으며, 고가의 자연 해산물들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좋은 관광여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려한 해안경관에서 관광객이 휴식할 수 있도록 민자를 유치해 콘도미니엄 같은 숙박시설을 배후부지에 건설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4.5 격포항

격포항은 변산반도 국립공원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의 자연경관(채석강, 부소사 등)이 수려하고 다양한 문

화자원이 분포하고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획기적인 교통여건 개선과 새만금 간척사업 완공시 수도권 등 대도시로부터 접근성의 양호로 관광객 급증이 예상되어 명실공히 종합기능 어항으로의 개발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부안군에서는 격포항 활성화 방안으로 친수성 방파제, 야외수족관, 아치교량, 녹지공원, 족구장, 야외 공연장, 상징조형물, 조각전시장, 인공폭포수, 산책로 등 관광 특화 시설계획을 수립, 해양수산부에서 시설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4.6 서망항

배후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2003년 6월 국립공원구역 조정 시 서망항이 다도해 국립공원으로부터 해지 되어야한다. 그 후 건물 건설 규제가 완화되어야만 배후부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현재 유보상태인 어민복지회관의 공사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진도대교 개통으로 외부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해졌고, 현재 다도해 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많으므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객 편의시설(주차장, 화장실 등)의 설치가 시급하다.

서망항 남서부측은 섬으로 둘러싸인 천연적인 양항으로서 항내 정온이 양호하여 기상악화 시 인근해역 조업어선들의 긴급대피항으로서의 기능이 있고, 휴게 또는 수리를 위한 어선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어민들을 위한 선구점이나 어민휴게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망항은 수질이 양호하며, 어종이 풍부하기 때문에 앞으로 낚시관광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호안 주위나 남방파제 쪽에 친수성 시설을 마련하고, 낚시인들을 위하여 넓은 배후부지에 콘도미니엄 등의 숙박시설을 설치하면 많은 관광객 및 낚시인들이 서망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5. 종합대책 및 어항어촌의 새 역할

이 6개 어항의 관리에 있어서 공통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배후부지에 폐어망 및 쓰레기 무단방치
- 활성화된 항의 경우 불법시설물과다
- 국립공원구역에 인접된 경우, 배후부지의 시설물에 제약이 따르는 점
- 배후부지에 있는 노후건물의 방치
- 주변도로 사정이 여의치 않아 어항 접근성이 낮음
- 어항의 개발·관리·이용 주체의 상이로 주민 의식 부재
- 관리재원 부족으로 인한 상시관리요원 등 관리인력 체계 미흡

따라서 시급한 개선방안을 들자면 다음과 같다.

- 어항내 무허가 건물 등 불법 시설물과 폐자재, 폐어망 등 불법 적치물 철거
-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조성 및 진입로 조성
- 국가 귀속된 민자시설의 대여로 인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매각 처분
- 민자 유치를 위한 홍보 (지자체, 수협, 어촌계 등)
- 관광어항으로의 전환을 위해 숙박시설, 친수시설, 녹지공간, 쇼펄물 등 유치
- 다기능 종합어항으로 유도 (수산물생산기반 시설 관광어항)
- 수협, 어촌계 등 이용자 단체도 당해 어항의 유지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은 부담.

한편, 배후부지가 넓고 비활성화 상태의 어항의 경우, 어항어촌의 지역경제에 보다 활력을 넣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최근에 정착된 주5일제 근무제, 웰빙 열풍,


한류문화 붐을 적극 활용하여 도시주거인의 방문, 단체 관광 등을 촉진하는 방법이 있다.

이 제안에 대한 최근의 예를 살펴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드라마 세트장을 유치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인 경우이다. 최근 '겨울연가'의 드라마가 한류열풍을 일으키면서 관광 및 문화수출에 의해 창출되는 수입효과는 엄청난 액수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드라마 세트장은 지속성이 길지 않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와 병행하여 보다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즉, 도시와 어촌교류 패키지상품개발, 바다관련 문화, 예술(상품)개발, 어민의식향상을 위한 문화이벤트 개최 등을 들 수 있다.

또, 아름다운 한국어항의 이미지홍보(공항입국장소-외국관광객유치), 공공장소(지하철역등에 어항어촌사진이나 특산물의 홍보물설치), 어항어촌에 위치한 소형 어촌마을박물관(강릉항;소리박물관)건립 등을 통해 어촌 어항의 이미지를 재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도시와 연계를 통한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도시어촌 직거래, 도시인들에게 보다 친숙한 휴식공간제공을 제공할 수 있는 어항어촌어장 체험프로그램 등을 어항별로 특색 있게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총망라하여 문화적 수단을 부가가치의 창출로 전환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어촌어항의 새로운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해양수산부 '국가어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연구보고서' 2003